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영 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영 순

인 준 서

김영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이 성공적 노후(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주관적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역할 상실과 더불어 주위의 친구 및 배우자의 죽음 등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형제·자매관계는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맥아더 연구에서 활용한 노인들의 자기효능감 측정 척도와 생활만족도 측정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와 기타 선행 연구를 종합 수정·보완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구성하여 면접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노인 남녀를 대상으로 370명에게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적률상관관계(Person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이 실시되었다.

이 같은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얻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후와의 관계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정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특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이며, 다음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서비스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경제적 지원과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와는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연령의 경우는 70세~79세의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86점으로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의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에 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종교가 있을 때, 직업이 있을 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형편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과 주관적 경제형편이 가장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와 교육정도도 성공적 노화에 그 다음 변수로 영향력을 미쳤으며 연령은 다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보아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무자녀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에 진입한 현 사회에서 더 이상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관계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같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가장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형제·자매간의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정서적 지원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형제·자매관계는 남은 노년기를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노년기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지

원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군청 산하의 복지센터 및 대학을 연계로 한 센터에서 형제·자매들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기관들의 상담지원을 통해서 노년기 형제·자매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II. 이론적 배경	5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의미와 관계 특성	5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의미와 특성	5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8
가) 정서적 지원	9
나) 경제적 지원	10
다) 서비스 지원	10
라) 객관적 유대	11
2. 성공적 노화	12
1) 노화와 성공적 노화의 의미	12
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	15
가) 심리적인 측면	23
나) 사회적인 측면	23
다)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	24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6
1. 연구모형	26
2. 연구문제	27
3. 용어의 정의	30
IV. 연구방법	32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32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39
3. 자료의 분석방법	42
V. 결과 및 해석	43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특성과 성공적 노화는 관계가 있는가?	43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중 어느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45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 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47
4.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51
VI. 결론 및 논의	5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국외 연구 결과	19
<표 2>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22
<표 3>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38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5>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 가설 검증 결과	44
<표 6>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관계	44
<표 7>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영향력 가설 검증 결과	46
<표 8>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46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가설 검증 결과	49
<표 10> 사회적 변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주관적 신체건강의 차이	50
<표 11>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검증 결과	53
<표 12> 사회인구학적변인과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54

그림 목 차

<그림 1> 성공적 노화의 모형	25
<그림 2> 연구모형	26

I. 서론

1. 문제 제기

현대사회는 노화와 장수에 대한 의학적, 생리적 규명과 함께 무병장수와 같은 수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년기의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만혼이 늘어남으로 출산율 저하와 동시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통계청에 지표에 따르면 1970년 1.99%였던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2004년 들어 0.57%로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고, 출산율 둔화 등으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2%에서 2025에는 19.9%로 2050년에는 37.3%로 이를 것이며,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25에는 29.1로 2050년에는 69.4로 이를 것이고,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는 34.3이었던 것이 2025에는 168.9 그리고 2050년에는 4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이처럼 현대는 '21세기 노인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과 대우는 매우 협소하다. 특히 적극적인 부모역할의 상실과 배우자와 친구의 부재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단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여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결핍은 외로움을 초래하여 이 외로움은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는 전생애에서 삶에 활기를 돋우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되어 노후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senberg와 Anspach(1973)는 노년기, 성인기 내에서 형제·자매와의 지원

활동은 배우자의 상실 시에 그리고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에(Shanas, 1968) 빈번히 발생함을 보고한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원이 성인자녀나 배우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결과(윤희·한경혜, 1994)로서 전통적인 효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효 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들의 지원이 대부분 도구적 지원(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게 됨으로서 노년기의 삶에 대한 행복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이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특히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특성 중 정서적 지원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 연구는 없다.

따라서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특성들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형제·자매관계의 특성 중 어느 특성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 들어 노인문제와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노인 개개인의 노후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환경과의 통합성 유지에 주요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조황숙,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제도는 보수적 복지 이데올로기와 실체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관계로 노인의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문제발생 이후에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적 지원을 주로 1

차적 비공식적 체계로서 배우자와 성인 자녀의 지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급증 및 사별로 홀로 남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배우자와 자녀들만을 기대하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의 사회적 지원체로서 같은 역사와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관계는 노인들의 노년기 삶의 만족을 위한 성공적 노화의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으로 비교적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형제·자매가 노인의 사회적 지원체로서 주목되어 연구되고 있다(조황숙, 2000). 그러므로 1차적 비공식적 체계만을 의지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가 중요한 노인의 사회적 지원체로서 부각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형제·자매의 특성은 책임과 의무의 세대간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보다도 동년배 집단(cohort age)으로, 지속적인 상호보완적 세대내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이다(Allan, 1977). 따라서 형제·자매는 연령의 유사성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동일세대의 결속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특한 감정 이입 능력(Avioli, 1989; 윤희 1994 재인용)을 가지는 정서적(감정적) 지원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인의 복지 및 사기와 관련해서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자원이 될 것이다.

둘째, 노년기에 겪게 되는 인생 사건으로 배우자의 죽음, 은퇴에 의한 사회적 지위 상실과 같은 생활의 변화에 가장 친근하다고 지각되는 특정 형제·자매가 상실감의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lau, 1973). 즉,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지각되는 특정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의 사기 저

하 및 노후 부적응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이다(조황숙, 2000).

따라서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유용한 사회화의 도구로써 사별, 은퇴 시에 성공적인 노화의 역할 모델로서 기여한다. 즉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자매의 비교 표준으로서 기여하고, 규범, 가치에 대한 옹고 그림의 안내자로서 기능(윤희·한경혜, 1994)을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도, 가치관의 일치도 등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수준에 따라 노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노인-손자녀 관계 역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와 이들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어느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또 다른 요인을 찾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서적 지원이 한국 노인에게 가장 성공적 노화를 갖을 수 있게 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의미와 관계 특성

1) 형제·자매 관계의 의미와 특성(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형제·자매는 가정 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성립되며, 혈연적 관계로 인한 생물학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호 호혜적(reciprocal)인 관계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인생주기 전체를 걸쳐 지속되므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비교적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다른 집단관계와는 달리 유전적·사회적 유산을 공유하며, 공통된 문화적 환경을 갖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유한 친밀한 경험의 역사를 갖는다(김희정, 2005).

Bossard과 Boll(1960)은 형제·자매란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경쟁자, 선생님, 자극 주는 사람, 도전자, 역할 모델, 동료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Cicirelli, 1980), 형제·자매란 형제간의 접촉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Cicirelli, 1985).

전경란(1990)은 형제·자매관계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지각한 이후로 상대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지각, 태도, 믿음, 감정들뿐만 아니라, 이들 간에 형성되는 상호작용 행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체로서 간주되어진다. 즉 형제·자매관계는 행위적, 인지적, 애정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오랜 기

간 동안 그 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형제·자매는 빈번한 동료적 관계임과 동시에 도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년기 형제자매 발달단계상의 상호작용의 독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보완적 세대 내 관계(Allan, 1977)를 들 수 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반해, 형제 관계는 비교적 고정적이며 영구적인 성격을 가진다(Poon, 1989 ; 윤희 1994 재인용). 특히 혈연만이 가질 수 있는 유대의 지속성은 성인기의 결혼, 독립 등의 일시적 단절이 있을 수도 있으나 중·노년기가 되면서 다시 관계를 유지하는 장점의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성인 자녀가 출가하면 대부분의 형제·자매는 아동기에 가졌던 원래 자신의 가족 결속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형제·자매들이 공유하는 일대기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지위이다(윤희, 1994). 즉, 가족 정체감의 공유로 아동기, 성인기를 통해 공유된 가족관계의 사건과 경험, 추억 등은 노년기 형제들의 과거를 회고해 보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독특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노년기에 형제간의 긴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Goetting, 1986)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은 노인의 사기증진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형제·자매의 관계는 전생애를 통한 애정과 갈등의 양면적 감정(Adams, 1981; 조황숙 2000 재인용)이다. 아동기, 청소년기의 형제간에 존재했던 경쟁적 관계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감소한다는 견해(Poon, 1989)가 있고,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Gold(1990)는 연령증가에 따라서 부러움, 질투, 분노의 감정은 감소되고 친

밀성과 애정 그리고 감정적 지원 및 심리적 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노년기가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데 노년기에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통해 이를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친하지 않았던 형제·자매도 노년기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Jerrome, 1981) 그리고 전해정(199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갈등은 성인기보다 갈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 청년기, 성인기를 통해 존재해왔던 갈등관계가 완화 또는 해결되어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

그러나 Laverty(1962)는 연령증가에 따라서 경쟁심을 감소하지만 아동기부터 지속되었던 경쟁심이 노년기에 재현된다고 하였다. Clark와 Anderson(1967)과 Ross(1982)는 노년기에 경쟁적인 형제·자매관계는 거의 없지만, 노부모 부양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경쟁심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Berezin(1997)도 노쇠한 노부모 부양이나 부모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논쟁을 아동기의 경쟁적 관계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Cicirelli(1980)는 친밀감과 경쟁심이 공존하는 형제·자매관계는 재산상속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적 관계로, 병환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밀감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넷째, 가족 내 모든 관계 중에서 형제·자매관계는 가장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다(Poon, 198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성·형제서열에 관련하여 형제간의 평등성이 서구의 그것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성인기 형제서열의 엄격성이 성인기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윤희, 1994)에 비추어 본다면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얻은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영향력의 양에 관계없이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들은 동일세대내의 '세대간 결속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특한 감정이입 능력을 가져(Avioli, 1989; 윤희 1994 재인용)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중요한 사회화 과정의 수단이 된다.(조황숙, 2000) Cicirelli(1977)는 동생은 윗 형제·자매를 관찰하면서 상실, 은퇴, 질병, 미망인 됨과 같은 역할 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즉,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는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안내자, 친구로서의 사기 고취, 상담자,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역할 모델로서 기여한다.

2) 노년기 형제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에서 서로 주고 받는 지원을 윤희·한경혜(1994)의 경우 '지원망'으로 개념화했다. 즉 개인 간의 사회 심리적, 도구적 원조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이란 개념에, 사회적 지원이 분배되거나 교환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서 형제·자매와의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물질적 도움 및 서비스의 제공, 지속적인 정서, 정보 등을 교환하는 지원관계로 보았다. Ross & Milgram(1982)는 형제와의 접촉 빈도와 규칙성이 노인의 자아 확인과 지원 수단으로서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Suggs(1989)의 연구에서도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 도움의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도울 때, 상호 접촉이 증가하며, 함께 하는 활동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선영·김태현(1994)은 형제·자매관계를 가족관계망의 한 부양체계로서 객관적 유대, 상호원조, 형제결속력을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형제·자매의 특성은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로 분류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상호 도움의 행동과 형제·자매간의 양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을 규명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본다. Lopata(1979)는 노인 미망인은 형제·자매와 접촉하는 양은 많지 않지만 “배우자의 죽음을 극복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형제·자매를 들고 있으며, 형제·자매를 서비스, 재정적 도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지원체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 특징들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지원(Affective Support)

정서적 지원은 애정, 친밀감, 신뢰, 이해, 의사소통, 존중과 같은 감정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한다.

앞서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 특성상 동년배이면서 평등한 관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년기에 형제의 지원은 정서적 지원의 성격을 띠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윤희, 1994) 또한 Troll(1975)은 중년기에도 형제·자매는 개인적 위기나 심각한 가족문제 발생시 서로에게 동료의식(companionship)과 지지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McGhee, 1985 재인용)고 하였다.

그리고 전해정(1993)은 노년기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은 법적, 재정적 지원의 물질적 도움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Allan(1977)은 노년기 형제·자매간에는 양적인 상호작용보다도 질적인 감정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된다고 했으며, 노년기에는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고 했다.

② 경제적 지원(Financial Support)

경제적 지원은 물질적, 재정적 도움(명절이나 제사의 비용, 수술비나 병원비 지원, 생활비) 등을 포함한다. 윤희·한경혜(1994)는 노년기 형제·자매들은 주로 의례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Rosenberg 와 Anspach(1973)은 성인기, 노년기 내에서 형제와의 경제적 지원활동은 배우자의 사일에 그리고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에(Shanas 1968) 빈번히 발생함을 보고한다(윤희, 1994 재인용). 그러므로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이 성인자녀나 배우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직계가족의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한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비록 형제·자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낮은 수준일지라도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지원이 끊어졌다면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파악될 수 있다.

③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

서비스 지원은 신체적 서비스(간병)·도구적 서비스(교통편의 제공), 취미활동 및 여가(여행, 모임), 의사결정 등과 같은 도움을 포함한다. Hoy와 Babchuk(1983)는 배우자 사별 시, 간병, 가사일 처리 등에 형제·자매관계에서 서비스적 지원이 일어난다(조황숙, 2000 재인용)고 하였다. Scott(1983)는 형제·자매의 원조를 ‘아플 때 돌보는 것’, ‘교통편의’가 가장 일반적인 원조의 유형이라고 하였고, Cicirelli(1979)는 극히 적은 비율만이 ‘사무적인 일처리’, ‘가사일’,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고(임선영, 1994 재인용)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의 지원도 경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의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한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④ 객관적 유대(Objective Attachment)

객관적 유대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객관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빈도, 거리, 밀도(density), 안정성(stability)등으로 측정되고 있다(Ward, 1985 ; Cohen et.al.1985; 윤희 1994 재인용). 이러한 지원망의 구조적 요인들은 사회적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빈번한 상호교류 속에서 지원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Cicirelli(1983)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들과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Shanas(1979)는 노인 형제의 50% 이상이 1년에 몇 차례의 전화 또는 방문이 접촉의 전형이라고 하였다(임선영, 1994 재인용).

그리고 Suggs(1989)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 도움의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도울 때, 상호 접촉이 증가하며, 함께 하는 활동도 많다고 하였다. Kivett(1985)도 지리적 근접성은 제공받는 도움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조황숙 2000 재인용).

위와 같은 동·서양의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령화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지원의 성향을 비교해 보고, 이러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들 특성 중 어느 지원 특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특성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노화와 성공적 노화

1) 노화와 성공적 노화의 의미

노화란 G. Stanly Hall이 최초로 노년기 규정에서 만들어낸 개념으로 “normal aging”와 “Senescence”의 의미를 포함한다(하정연, 2003, 재인용) “normal aging(정상적인 노화)”란 발생학적으로 대표적인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 “Senescence”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노화로 전 생애 가운데서 퇴화과정(degenerative processes)이 재생적인 생물학적 과정(regenerative biological process)을 통하여 결국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화 쇠퇴과정은 정상적인 노화의 부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화를 ‘가령(加齡)’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성장기를 통하여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므로 ‘나이를 먹는다’의 의미에서 일컫는 말이다. 쇠퇴의 과정이나 진보 및 퇴화적인 변화가 인간의 연령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노화에 따라 ‘인지적 기능이나 감각적 기능’ 등과 같이 쇠퇴의 국면에 자리잡는 상실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지혜’와 같이 점차 늘어나는 성장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령화가 아닌 가령화의 시각에서 인간의 인생 후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에서도 1951년 제2차 대회에서 ‘노화란 인간이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육체적·정서적·환경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증가, 획득, 승리, 보상과 같은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노화는 상실, 감소, 쇠퇴, 죽음과 같은 개념들과 연관되어 생각되기 마련이다. 이 두 단어들을 종합해 ‘노년기의 성공’으로 간주하여 젊은 시절 도전의 성취와 관계된 성공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는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노화의 복합적 기준을 7가지 기준 즉,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 생활만족도 등으로 분류(Bengtson & Kuypers, 1985; 안지연, 1998 재인용)하고,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성공적 노화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로는 정신 건강 수준, 생애목표, 생성감과 지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즉, 행동의 가소성(plasticity)과 같은 기준이 있다. 주관적 지표로는 자아개념,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 지각된 또는 개인적 통제(perceived or personal control)과 같은 기준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Bengtson, Reedy & Gorden, 1985; 안지연, 1998 재인용) 또한 성공적 노화의 기원에서와 현대의 노년학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개념의 기원은 기원전 44세기 키케로(Cicero)가 쓴 훌륭한 노화(good aging)의 본질에 관한 수필에서 찾을 수 있다. 키케로는 훌륭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돌보고, 적절히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torres, 2002; 김미혜 2005 재인용).

Carl Jung은 근대에 있어서 중년 심리학을 태동하게 한 주인공으로 중년 이후의 성공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았고, 신앙을 통한 자기정체성의

확립으로 보았다.

성공적 노화를 인간의 평생 발달적 과업을 통한 관점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Eikson(1963)로 살펴볼 수가 있다. Eikson은 노년기의 성인들은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며, 이 시기 노인들은 삶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으며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 올바른 자아 통합감을 획득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노년학에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은 1987년 Rowe와 Kahn이 Science에 기재한 “Human ag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롯된다. 그전까지의 노화의 정의는 나이와 관련한 손상만을 강조하고 노인들 간의 실질적인 차이 이질성을 무시한 것을 지목하고 Rowe와 Kahn는 연령 변화에 따라 주된 평균적인 감퇴를 보이는 많은 자료들 속에서 최소한 생리적인 손상을 경험하거나 또는 전혀 생리적인 손상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리학적 용어로서 ‘성공적 노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Neugarten(1970)은 노년기에는 은퇴, 친구 및 배우자와의 이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노년기에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성취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여 인생의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Havighurst(1972)는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6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신체적 기능 및 건강 감소에 대한 적응, 둘째 은퇴와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 셋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넷째, 연령 그룹과 명백한 관계 설정하기, 다섯째, 유연한 방법으로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기, 여섯째, 만족할 만한 신체적 생활 정돈하기 등이다(성혜영 2005).

이처럼 Carl Jung과 Eikson은 노년기를 평생 발달적 시각을 갖고 자아통

합을 주장하였고, Neugarten은 이별에 대한 적응과 실패에 대한 수용을 Havighurst은 변화된 생활에 대한 적응을 노년기 발달 과업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생리학적 측면만을 초점을 맞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이며 적응의 수준이 높은 상태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다(Wong, 1989; 김미혜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공적 노후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자면, 성공적 노화란, “노화를 생물학적 노화에 국한하기 보다는 인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신체·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변화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라고 정의 내린다.

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 연구

사람의 노화에 대한 정의와 성공적 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기본 범주화를 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이론연구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과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그리고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 있다.

Cartensen(1991)의 사회 정서적 이론은 노인의 사회 관계망의 크기 축소는 연령증가와 함께 사회관계의 동기가 변화함에 따른 노인들의 능동적 선택행동이라는 것(하정연, 2003)이다. 즉 사회관계의 수의 감소는 상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인이 선택한 적응적이고 건강한 노화과정의 측면임(한경혜, 2000)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Cumming & Henry(1961)의 유리이론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활동과 관여를 즐기고 사회는 은퇴하기를 강요함으로써 나이듦에 따라 사회로부터 분리를 조장한다는 것이다.(정옥분, 2001) 이에 대한 Rowe와 Kahn(1998)은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재생산 활동을 중지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리이론과는 달리 Maddox의 활동이론에서는 대인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하므로 노인들이 보다 활동적일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활동에 대한 참여빈도와 그것에 대한 친밀감의 수준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Lemon, Bengton & Peterson, 1972) 즉, 활동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꼭 짜여진 생활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인성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신 노년층 문화와 흡사하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들 중 Ryff(1982)는 긍정적 기능과 관련된 6개 차원에 기초한 성공적 노화의 통합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수용(self-acceptance),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적 지배, 생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Wong(1989)은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을 성공적 노후로 정의하고 있으며 Schulz와 Heckhausen(1996)은 일생을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성공적 노후를 이해하는 전생애주기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강조하고 있다(김미혜, 2005 재인용).

Neugarten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일상적 활동의 즐거움,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수용하기, 목표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자기 가치 인식, 긍정적 태도와 분위기 유지이다(조해경, 2002 재인용).

Fisher와 Specht(1999)는 60세에서 93세 노인 36명에게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질문하고 분석하여 창조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 수용, 건강, 자율성, 목적의식 등이 성공적 노화를 구성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창의적 활동이 경쟁 및 목적의식 성장 의식 등을 촉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성혜영, 2005).

Rowe와 Kahn(1998)은 미국 내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세 가지 이론적 요소가 ‘질병과 장애의 부재 및 그 위험 요소가 없는 것’,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인생 참여’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erlin Aging Study(1990)에는 성공적 노화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수명,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 인지기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을 꼽았다. 이는 Rowe의 개념에 수명, 개인적 통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을 더한 것이다.

Peterson(1999)은 건강의 개념을 신체적 영역(예: 적절한 신체적 기능), 사회적 영역(예: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혹은 영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죽음에 대해 불안을 극복하고 죽음을 맞는 것은 것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는 관점을 갖고 Rowe와 Kahn의 기준에 영성을 추가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Crosnoe와 Elder(2002)는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차원에 걸친 요인들을 확인하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하여, 개인의 가족 참여, 직업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가족 중심적인 남자는 노후에 적응적이었으며, 직업 중심적인 남자는 노후에 덜 적응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아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측면 중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hou 등(2002)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고, 연령, 성, 교육정도,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 빈도, 재정적인 긴장, 만성적 질병의 수, 자기가 평가한 건강, 청력 손실, 생활 만족도가 성공적인 지표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Mitchell(2002)은 성공적 노화를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들의 통합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Tate, Lah & Cuddy(2003)도 1,771명의 캐나다 남성 노인들에게 성공적 노화의 정의를 질문하여 20여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는데 건강, 만족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활동성, 독립성, 나이 늙에 대한 순응 등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 연구의 국외 연구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국외 연구 결과

학 자	성공적 노화
Wong(1989)*	신체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 적응 능력
Ryff(1989)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Berlin Aging Study(1990)	수명,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 인지기능, 개인적 통제,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인생에 대한 만족
Baltes & Baltes(1993)*	장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함과 생산성, 재인조절 능력, 생활만족도
Neugarten (1994)**	일상적 활동의 즐거움,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수용하기, 목표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자기 가치 인식, 긍정적 태도와 분위기 유지
Padilla와 Grant(1995)*	정신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의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
Rowe, Kahn(1998)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Crawford(1999)*	생활만족, 사회적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Leviatan(1999)**	사회적 관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안정성, 자신의 일을 보유하는 것
Fisher & Specht(1999)**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 수용, 건강, 자율성, 목적의식
Guse & Masesar(1999)*	가족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성격 특질, 본질적 측면
Peterson(1999)	신체적 영역(예:적절한 신체적 기능), 사회적 영역(예:경제적 어려움, 위해에 두려움 없이 생활) 정신적, 정서적 혹은 영적 영역

학 자	성공적 노화
Collings(2001)*	자연적 측면: 건강, 신체적 활동, 독립적인 삶, 감퇴하는 건강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가정적 측면: 남편, 자녀, 손자녀와의 가족관계 경제적 측면: 연금의 적절성과 경제적 지원 태도 측면: 정신건강, 술, 담배, 약물 등의 문제없음, 지역사회 존경, 지혜와 지식의 전수, 사회성
Ingersoll-Beyene (2002)*	화목(가족, 친구, 이웃들과 상호작용), 상호의존, 수용, 존경, 즐거움
Crosnoe & Elder(2002)	가족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Yewoubdar Beyene (2002)*	신체적, 정서적, 영적, 가족 간의 통합, 좋은 인간관계
Chou와 Chi(2002)	연령, 성, 교육수준, 긴밀한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 빈도, 재정적인 긴장, 만성적인 질병의 수, 자가 건강평가, 청력손실, 인생만족도
Tate, Lah & Cuddy(2003)**	건강, 만족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활동성, 독립성, 나이 들에 대한 순응

* 김미혜, 신경림(2005) 재인용, ** 성혜영(2005) 재인용

국내에서도 저출산과 더불어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성공적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질문으로 노인과 대학생에게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질문한 박경란·이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 수용, 상호 교류, 봉사 의 일곱 가지 요인이 분류되었다. Q 방법론을 이용해 성공적 노화 개념 인식에 따른 집단 분류를 시도한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들은 대체로 사회관계 및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고학력 고소득 집단은 복지혜택을

중요시하는 유형 등으로 나뉘어졌다.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홍승우(2001) 연구에서는 건강, 가족결속, 사회 활동 및 사회관계, 삶에 대한 수용정도, 죽음에 대한 수용정도를 성공적 노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존문헌들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고자한 홍현방(2003)은 이를 개인적 자원, 심리적 측면, 적응 과정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김미혜 등(2006)은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첫째가 친밀한 관계로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설명하였다. 둘째는 성공적 노후에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경제적 안정을 들었고, 셋째는 건강은 성공적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 증진 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넷째, 사회관계 및 활동의 중요성으로 친구, 이웃, 직장 및 사회단체 동료와의 사회적 연계로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노년기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2>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학 자	성공적 노화
김태현, 김동배 외 3인 (1998)	신체·정신건강 차원,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 차원, 가족관계 차원, 직업·은퇴생활 및 사회참여도
홍승우(2001)	건강, 가족결속, 사회활동 및 사회관계, 삶에 대한 수용 정도, 죽음에 대한 수용정도
홍현방(2001)	심리적인 발달: 자아개념과 통제감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인 접촉, 가족과의 접촉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성혜영, 유정현 (2002)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응, 정신적 신체적 기능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의 관계
박경란, 이영숙 (2002)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
김은숙, 김귀분 (2002)	대접받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만족한 삶
조해경(2002)	건강, 경제적 자립
강인(2003)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김미혜, 신경림, 외 2인 (2004)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재산 복, 여가 복, 건강 복, 죽음 복, 거처 복, 마음 복
성혜영(2005)	건강상태, 사회관계망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심리적 특징, 생산적 활동,
김미혜, 신경림, 외 2인 (2006)	부부관계,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관계 및 활동

위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구성 범주는 인지·정서가 통합되는 노년으로서의 심리적인 측면,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노년으로서의 사회적 측면, 건강한 노년으로서의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1 참고>

① 심리적인 측면(Psychological Feature)

심리적인 측면의 노화는 과거 정신적 노화라고 불리었다. 이는 생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 즉, 개인의 행동 적응력을 말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노화에 비하여 이 정신적 노화는 지능 및 감정기능의 변화를 말한다(오병훈, 2004 재인용).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의존성, 신뢰감, 애정과 기분의 변화, 불만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행복감 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노화된 자신에 대한 수용감, 주관적인 만족감,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맥아더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 이미지가 생산적 활동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Rowe & Kahn, 1998)거나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특징이 생산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Glass, Seeman, Herzog, Kahn & Berkman, 1995)가 있어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와 심리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② 사회적인 측면(Sociologic Feature)

사람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 개인이 인생을 겪어 나가는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위치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노화란 특정 연령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기능을

의미하며, 직업기능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자아상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큰 특성(오병훈, 2004)을 지니고 있다.

사회관계 및 활동의 중요성은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뒷받침 되어 오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친구, 이웃, 직장 및 사회단체 동료와의 사회적 연계로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노년기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능하게 해준다(Crosnoe & Elder, 2002).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Bull, 1989; Chapman and Beulet, 1983)에서는 사회활동에 참여를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참여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활동, 외출과 여행,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도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상실을 경험한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중돈 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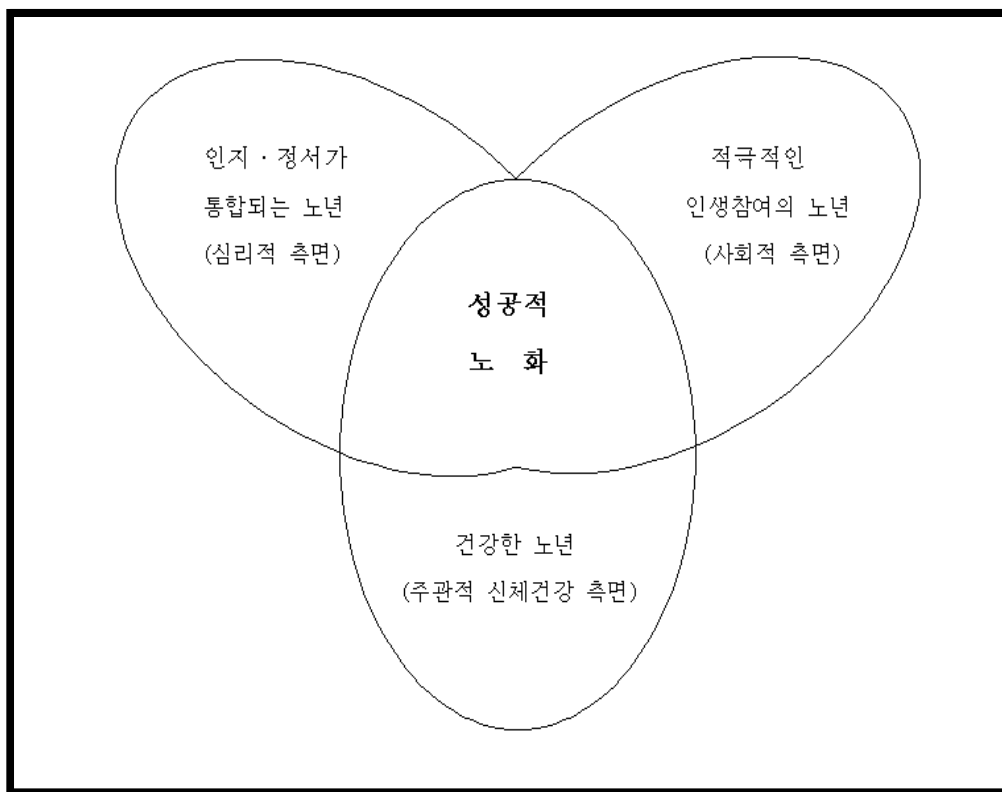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활동 및 참여는 주관적 신체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안정성, 자신의 일을 보유하는 것 등은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③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Subjective Physical Health)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관계로 건강한 노인도 직장을 잃고 친구와 배우자를 잃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건강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의 기능이 치매의 수준에 달하지만 정신적으로 강인하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매의 역기능들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공적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은 객관적인 실제 건강상태보다 자기보고식(self-report)의 주관적 건강 평가가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연구(Medley, 1796; 김태현 1994)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건강지표를 사용하기보다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로써 주관적 신체건강을 성공적 노후의 기본 범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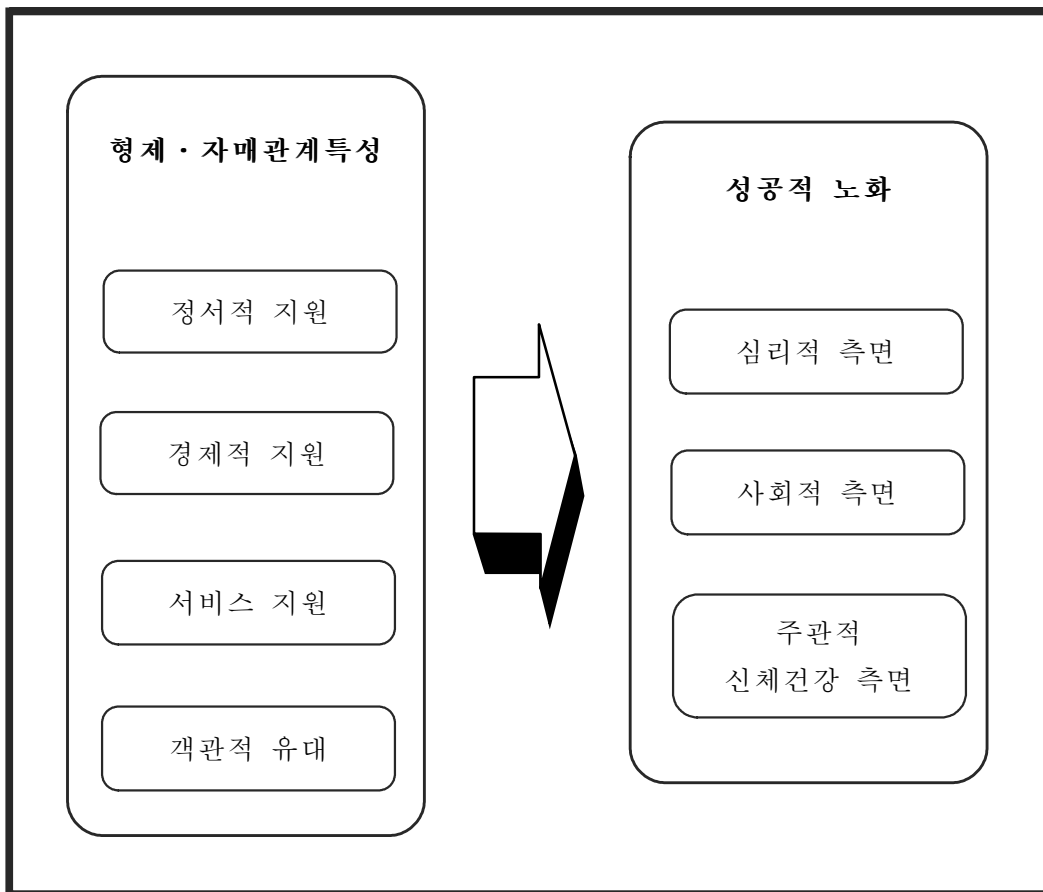


<그림 1> 성공적 노화의 모형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은 아래<그림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과 성공적 노화는 관계가 있는가?

- 가설 1 :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상관
이 있을 것이다.
 - 1-1. 정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1-2. 경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1-3.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1-4.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가설 2 : 기타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들보다 정서적 지원 특성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중 어느 특성이 가장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 가설 1 :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 가설 1 :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 가설 2 :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 교육정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가설 1 :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1-1.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1-3.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1-4.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미치지 않을 것이다.

- 가설 3 :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들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
 - 3-1. 연령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3-2. 종교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3-3. 직업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3-4. 교육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 3-5. 주관적 경제형편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 및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Sibling Relationship in Old Age)

관계란 혈연적 관련 상태와 상호적, 호혜적 관련 상태를 말하는데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혈연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 세대 내 관계를 갖으며,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전 생애를 애정과 갈등의 양면적 감정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중 가장 평등한 관계라고도 한다.

그리고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정서적 지원의 특성과 경제적 지원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의 특성을 갖는다. 정서적 지원은 애정, 친밀감, 신뢰, 이해, 의사소통, 존중과 같은 감정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한다. 경제적 지원은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서비스 지원은 신체적 서비스(간병), 도구적 서비스(교통편의 제공), 취미활동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형제·자매관계를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세대 내 관계로써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갖는 관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2)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광의적 접근으로 볼 때, 노화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간다. 즉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보며, 성공적 노화란 생리학적 측면만을 초점을 맞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중심으로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로 적응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특징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른 심리적 측면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포함하며, 사회적 측면은 사회활동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은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느끼는 주관적 건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란, “노화를 생물학적 노화에 국한하기 보다는 인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신체·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변화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라고 조작적 정의 내린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노인’을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다. 한편 국·내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60세와 65세로 다르게 규정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노년기의 기준을 60세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이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60세를 노령에 이른 것으로 축하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 정년이 55세~60세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2005년 개정)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를 60세로 기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성공적 노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연구의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지원망의 특성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지원망의 특성은 독립변수로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지원으로 구분된다.

① 정서적 지원(Affective Support)

정서적 지원의 척도는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윤희·한경혜(1994)의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윤희·한경혜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관계의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 심리적 지원척도로 Cicirelli(1980)의 형제·자매관계 유대의 특성을 토대로 하였다.

정서적 지원의 척도는 위의 총 5문항을 사용한 5점 likert척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늘 그렇다’에 5점, ‘자주 그렇다’에 4점, ‘어쩌다 그러는 편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의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간에 정서적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803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② 경제적 지원(Financial Support)

경제적 지원의 척도는 여러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형제·자매관계에서 경제적 지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안명자(1994)와 이영화(1997)의 연구에서 형제·자매관계의 기능적 특성 중 2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윤희·한경혜(199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2문항은 최재석(1975,1987),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76,1985)의 개념 틀을 기초로 한 문항으로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서로 물질적으로 힘 닿는데 까지 도와준다’와 ‘아플 때 수술비나 병원비를 지원해준다’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임선영(1993)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형제간의 원조형태를 Cicirelli(1983)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문항을 선택하여 ‘내가 힘들 때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로 수정·보완하여 척도로 사용하였다.

경제적 지원의 척도는 위의 총 5문항을 사용한 5점 likert척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늘 그렇다’에 5점으로 하여 ‘자주 그렇다’에 4점, ‘어쩌다 그러는 편이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의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간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802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③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

서비스 지원의 척도는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조황숙(2000)의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안명자(1994)와 이영화(1997)의 연구에서 형제·자매관계의 기능적 특성의 선행연구를 기본 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집의 중요한 일을(법적문제, 주택문제)결정할 때 도와준다’, ‘집수리, 차수리 등 살림살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와준다’, ‘자녀문제 발생 시 상의하고 도와준다’를 수정·보완하여 3문항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윤희·한경혜의 연구에서는 형제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적 지원척도로 최재석(1975),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76,1985)의 개념 틀을 기초로 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간호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해준다’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윤희·한경혜(1994)의 연구에서는 사교적 지원척도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약수터, 등산, 여행.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로 수정·보완하여 질문지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서비스 지원의 척도는 위의 총 5문항을 사용한 5점 likert척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늘 그렇다’에 5점으로 하여 ‘자주 그렇다’에 4점, ‘어쩌다 그러는 편이

다'에 3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의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간에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798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④ 객관적 유대(Objective Attachment)

객관적 유대 척도는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윤희·한경혜(1994)의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윤희·한경혜의 연구에서는 형제 지원의 구조를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Antonucci와 Akiyama(1987), Dimond와 그의 동료들(1987)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이 객관적 유대는 거주 근접성으로 응답자와 형제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로 측정하였고, 6점 likert척도로써 '해외'에 1점, '다른 도'에 2점, '같은 시내'에 3점, '같은 도'에 4점, '걸어서 30분 미만'에 5점, '같은 동네(아파트)'에 6점을 주었다. 방문 및 전화 빈도는 형제와 만나는 회수를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7점 likert척도로써 '일 년에 1번 이하'에 1점, '일 년에 2~3번'에 2점, '한 달에 1번'에 3점, '한 달에 2~3번'에 4점, '일주일에 1번'에 5점, '일주일에 2~3번'에 6점, '거의 매일'에 7점을 주었다. 편지쓰기와 e-mail빈도는 본 저자가 자체 개발하였으나 신뢰도 계수를 낮게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못했다.

객관적 유대는 총 3문항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간에 거리가 가깝고 상호간 왕래를 자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825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2) 성공적 노후의 특성

성공적 노후의 특성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주관적인 신체건강 측면으로 구성되고 이는 종속변수에 속한다.

① 심리적인 측면(Psychological Feature)

심리적인 척도는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성혜영(2004)의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성혜영 연구에서는 사용된 맥아더 연구(Seeman 등, 1993)에서 활용한 노인들의 자기 효능감 측정 척도(Rodin & McAvay, 1992)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4문항을 사용하였고,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척도의 생활만족도 6문항을 사용하여 총10문항으로 심리적인 측면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심리적 측면의 척도는 위의 총 10문항을 사용한 5점 likert척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그렇지 않다’에 2점을, ‘보통이다’에 3점을,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그리고 역코딩 된 문항은 8, 9, 10번 문항이다.

따라서 심리적 측면의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고, 즉 성공적 노화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769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② 사회적인 측면(Sociological Feature)

김미혜·신경림(2005)과 그의 동료들이 자체 개발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친·인척들과 자주 어울린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인 측면 척도는 관련연구를 참고로 하여 성혜영(2004)의 연구자가 생산적 활동척도로 작성한 것으로 맥아더 연구에서 활용한 Herzog 등(1989)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단체활동, 교육 참여, 손자녀 돌보기의 4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박소연(2004)연구자가 관련연구를 참고로 한 친척 역할활동, 친구 역할활동(김정순, 1989 ; 서동인, 1989 ; 이경희, 1988 ; Lemon, Bengtson & Peterson, 1972)의 2문항을 수정·보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적인 측면은 5점 likert 척도로써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50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즉, 성공적 노후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0.771로써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③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Subjective Physical Health)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은 성혜영(2004)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1문항과 김미혜·신경림(2005)과 그의 동료들이 자체 개발한 척도로 규칙적인 생활 1문항, 윤진(1982)의 노인 생활적응 척도로 ‘늙고 졌다고 느껴 진다’,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의 2문항, 본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동년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생각 한다’의 1문항으로 총 5문항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관적인 신체건강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써 주관적인 건강상태

척도 1점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에 1점,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건강한 편이다’에 4점, ‘매우건강하다’에 5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신체건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역코딩 된 번호는 3번 문항이다.

따라서 주관적 신체건강의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건강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고, 즉 성공적 노후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804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표3>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요 인		문항수	점수범위	Cronbach's alpha
형제자매관계 특성	정서적 지원	5	1 ~ 25	0.803
	경제적 지원	5	1 ~ 25	0.802
	서비스지원	5	1 ~ 25	0.798
	객관적 유대	3	1 ~ 20	0.825
성공적 노후 특성	심리적 측면	10	1 ~ 50	0.769
	사회적 측면	10	1 ~ 50	0.771
	주관적 신체건강	10	1 ~ 50	0.804
	성공적 노후	5	1 ~ 50	0.796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과 영역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은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본 조사에서 수정 및 제외되었다.

본 조사는 2006년 2월 1일에서 4월 25일에 걸쳐서 약 400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은 유의표본추출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성북구 노인종합복지관, 부평 노인종합복지관, 서빙고 온누리 교회의 노인대학 및 산악회 모임 등에 직접 배부하여 면접조사를 하였고, 일부는 자기보고식으로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370가 회수되었으며, 370명의 응답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으로 살펴보았다.(표4 참고)

조사대상자인 60세 이상 노인의 성별은 남 43.2%(N=160), 여 56.8%(N=210)로, 연령은 평균 67.9세(SD=5.98)로 범위는 60세에서 93세까지였다.

종교는 경우 73.5%(N=27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7%(N=95)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69.7%(N=258)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4%(N=94)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2.7%(N=121)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는 54.3%(N=201), 대졸이상은 12.5%(N=46)이었다.

주관적 경제형편은 보통으로 느끼는 노인이 60.3%(N=223)로 가장 많았으며, 힘들어서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은 20.8%(N=77), 충분하여 불편함을 못 느끼는 노인은 18.3%(N=6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직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경제형편은 '대부분 보통으로 느끼거나 충분하다'라고 느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학력수준은 고졸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70)

변 수	구 분	N	%
성 별	남 성	160	43.2
	여 성	210	56.8
연 령	60~69세	229	61.9
	70~79세	123	33.2
	80~89세	14	3.8
	90세 이상	2	0.5
종 교	있 다	272	73.5
	없 다	95	25.7
직 업	있 다	94	25.4
	없 다	258	69.7
교육정도	무 학	23	6.2
	초등학교 졸업	77	20.8
	중학교 졸업	101	27.3
	고등학교 졸업	121	32.7
	대학교 졸업	41	11.1
	대학원 이상	5	1.4
주관적 경제형편	매우 힘들다	7	1.9
	힘 들 다	70	18.9
	보통이다	223	60.3
	충분한 편이다	56	15.1
	매우 충분하다	12	3.2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 관계(Person correlation)를 사용하여 가설 1와 가설 2를 증명하였다.

<연구문제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중 어느 특성이 가장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가설 1에서 가설 4를 증명하였다.

<연구문제3>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가설 1에서 가설 6을 증명하였다.

<연구문제4>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가설 1에서 가설 3을 증명하였다. 성별과 종교 그리고 직업은 가변수화(dummy variables)하여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과 성공적 노화는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와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가설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가설 1-1)의 “정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상관계수 .404***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가설 1-2) “경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상관계수 .366***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가설 1-3)의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상관계수 .383***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4)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상관계수 .208***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들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가설 2> “기타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보다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정서적 지원의 상관계수가 .404***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표 6 참조>

<표5>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1-1. 정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1-2. 경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1-3.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1-4.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2. 기타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보다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채택

<표6>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관계

변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성공적 노화
정서적 지원	1				
경제적 지원	.573***	1			
서비스 지원	.547***	.773***	1		
객관적 유대	.238***	.413***	.424***	1	
성공적 노화	.404***	.366***	.383***	.208***	1

* p<.05 **p<.01 ***<.001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중 어느 특성이 가장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가설 1>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표8>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193의 설명력을 갖고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의 β 값이 .254***로 가장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가설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하여 <표8>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의 β 값이 .058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가설 3>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하여 <표8>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서비스 지원의 β 값이 .174*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성공적 노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4>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하여 <표8>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객관적 유대의 β 값이 .024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7>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영향력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노년기 형제·자매 특성 중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8>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변인	B	β
형제·자매와의 정서적 지원	.738	.254***
형제·자매와의 경제적 지원	.170	.058
형제·자매와의 서비스지원	.465	.174*
형제·자매와의 객관적 유대	.083	.024
Constant	59.021	
R ²	.193	
F값	18.303***	

* p<.05 **p<.01 ***<.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와 관련하여 <가설 1>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남성의 성공적 노화의 값이 83.11, 여성이 82.36으로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참고>

<가설 2>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F값이 4.69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세~79세의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86점(SD=14.60)으로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의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에 69점(SD=21.21)으로 가장 낮았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 결과 연령과 성공적 노후와의 70세~79세의 노인과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세~79세의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높게 느꼈고, 90세 이상의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가장 낮게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관적 신체건강의 경우는 모든 연령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적음과 많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신체건강은 개인의 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3>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t값이 5.189**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84.75점(SD=12.46), 종교가 없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76.56점(SD=15.32)이다. 따라서 노인이 종교를 갖는 것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4>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t값이 2.661**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86.19점(SD=11.66), 직업이 없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81.81점(SD=14.33)으로 직업을 갖은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5> “교육정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F값이 13.21***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학의 노인은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70.61점(SD=16.54)으로 초등졸업의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79.18점(SD=13.58), 중 졸업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가 81.02점(SD=12.09), 고졸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점수가 85.57점(SD=12.20), 대학이상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점수가 91.02점(SD=13.18)로 나왔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 교육 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에 있어서 무학과 대학이상의 집단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 노화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설 6>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F값이 37.173***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점수는 72.71점(SD=11.25), ‘보통이다’라고 느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는 83.83점(SD=12.67),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점수는 90.01점(SD=13.21)로 나왔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주관적 신체건강의 ‘힘들다’와 ‘보통이다’, ‘충분하다’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을

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종교가 있을 때, 직업이 있을 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형편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는 70~79세의 노인들이 가장 성공적 노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다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5. 교육정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6.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표1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공적노화의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주관적 신체건강 측면의 차이

변인	분류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주관적신체건강측면			성공적 노후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자	33.20	6.69		32.98	5.83		17.09	3.37		83.11	13.72	
	여자	32.97	7.16		33.28	5.48		16.18	3.23		82.36	13.71	
	t값	.316			-.513			2.605			.522		
연령	60~69	32.15	6.36	AB	32.72	5.27	B	16.22	3.28	A	80.93	12.88	AB
	70~79	34.51	7.67	B	34.46	5.81	B	17.20	3.33	A	86.18	14.60	B
	80~89	36.57	6.45	B	29.71	6.62	B	16.00	3.16	A	82.29	13.54	AB
	90세이상	26.00	11.31	A	23.50	7.78	A	19.50	2.21	A	69.00	21.21	A
	F값	5.127**			6.626***			3.039*			4.695**		
종교	있다	33.85	6.54		34.10	5.26		16.83	3.01		84.75	12.46	
	없다	30.80	7.44		30.35	5.79		15.69	4.00		76.56	15.32	
	t값	3.541**			5.573***			2.867**			5.189***		
직업	있다	34.78	6.03		33.94	5.07		17.57	3.08		86.19	11.66	
	없다	32.62	7.26		33.05	5.77		16.25	3.34		81.81	14.33	
	t값	2.575*			1.391			3.457**			2.661**		
교육 정도	무학	27.39	8.07	A	28.78	6.92	A	14.68	3.98	A	70.61	16.54	A
	초등졸	31.21	6.94	B	32.34	5.64	B	15.72	3.22	AB	79.18	13.58	B
	중졸	32.29	6.46	BC	32.65	5.36	B	16.22	2.66	BC	81.02	12.09	BC
	고졸	37.67	6.14	CD	33.78	4.94	B	17.19	3.40	CD	85.57	12.20	C
	대학이상	36.78	6.60	D	36.17	5.64	C	18.07	3.40	D	91.02	13.18	D
	F값	11.611***			8.331***			7.104***			13.209***		
주관 적 경제 형편	힘들다	27.31	5.08	A	30.75	5.72	A	14.80	2.84	A	72.71	11.25	A
	보통이다	33.91	6.41	B	33.37	5.34	B	16.66	3.28	B	83.83	12.67	B
	충분하다	36.75	6.53	C	35.03	5.62	C	18.24	3.04	C	90.01	13.21	C
	F값	47.498***			11.584***			21.444***			37.173***		

* p<.05 **p<.01 ***<.001

4. 형제·자매관계 특성(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364의 설명력을 갖고 F값이 16.758***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표 12참고>

<가설 1>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에 관련하여 (가설 1-1)의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β 값 .240***으로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왔다.

(가설 1-2)의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관련하여 β 값이 .07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경제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설 1-3)의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관련하여 β 값이 .11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설 1-4)의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관련하여 β 값이 -.005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β 값이 -.06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설 3>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들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가설 3-1)의 “연령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는 β 값이 .10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연령은 성공적 노화에 다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2)의 “종교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β 값이 131**으로서 종교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3-3)의 “직업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β 값이 -.093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직업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설 3-4)의 “교육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β 값이 .167**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3-5)의 “주관적 경제형편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β 값이 .222***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나왔다. 따라서 교육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형제자매특성인 정서적 특성과 주관적 경제형편이 가장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와 교육정도도 성공적 노화에 그 다음 변수로 영향력을 미쳤으며, 연령은 다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보아 형제·자매간의 정서적 지원과 주관적 경제형편이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검증

가 설	채택 여부
<p>가설 1 : 형제·자매관계 특성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1-1.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2. 경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1-3. 서비스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1-4. 객관적 유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채택 기각 기각 기각</p>
<p>가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미치지 않을 것이다.</p>	<p>채택</p>
<p>가설 3.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주관적 경제형편)들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 미칠 것이다.</p> <p>3-1. 연령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3-2. 종교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3-3. 직업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p> <p>3-4. 교육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p> <p>3-5. 주관적 경제형편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p>	<p>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p>

<표1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성공적 노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B	β
형제자매의 정서적 지원	.695	.240***
형제자매의 경제적 지원	.206	.071
형제자매의 서비스 지원	.295	.111
형제자매와의 객관적 유대	-.016	-.005
성별 ¹⁾	-1.669	-.061
연령	2.420	.101*
종교 ²⁾	4.166	.131**
직업 ³⁾	-2.783	-.093
교육정도	2.020	.167**
주관적 경제형편	4.946	.222***
Constant	42.771	
R ²	.364	
F값	16.758***	

* p<.05 **p<.01 ***<.001

-
- 1) 성별 : 남자=1, 여자=0
 2) 종교 : 있다=1, 없다=0
 3) 직업 : 있다=1, 없다=0

V. 결론 및 논의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2%)에 진입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2004)에 따르면 2026년에는 65세 노령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고령사회가 맞는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노인의 만족스러운 삶 즉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Cutler(1979)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나 사회모임, 결혼이나 친구 등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65~74세 연령층은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맥아더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한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 및 다른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주요 정서적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정서적 지원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현 부부중심의 무자녀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자녀의 지지는 줄 수밖에 없으며, 길어진 노년기는 배우자의 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지만 현재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과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보다 형제·자매가 많아 이들이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형제·자매들은 일생을 통해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른 관계에 비해서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서로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공동경험의 정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지리적 이동이 잦은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 다른 인간관계는 끊임

없는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으로 점철되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규모의 축소의 사회적 변화는 형제·자매 수의 감소와 형제·자매간의 나이차이 감소를 가져왔고, 이것은 형제·자매간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현대사회의 지리적 이동성은 친구와 같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며 이런 요인은 고정적이며 지속적 특성을 갖는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므로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정서적 지지의 제공자로 형제·자매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총 370명(남자:160, 여자:210)이었다. 회수된 자료는 빈도 분석과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는 성공적 노화와 매우 높은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형제·자매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둘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객관적 유대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지원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형제는 연령동료(age peers)이자 세대내 관계라는 점에서 수평적 유대를 이끌어 부모, 자녀와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의무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을 가지며 그 결과 밀접한 감정적 유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친구간의 유대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형제·자매 관계는 평등성에 기반한 자발성과 상호 의존성, 그리고 동료의식과 지지감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평등이론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큰 만족을 느끼지만 과다수혜자는 그들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소수혜자는 그들이 받은 것보다 많이 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Bedford(1989)도 노인들은 상호교환이 될 수 없는 원조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이 다른 지원들에 비해서 사회 심리적 지원과 더 큰 관련이 있고 독특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또한 전해정(1994)의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법적·재정적 원조 등의 물질적 도움보다 심리적·정신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제·자매관계 특성 중 서비스 지원도 성공적 노화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나뉘는데 정서적 지지는 애정, 좋아함, 존중과 존경의 직접적인 표현을 포함하지만 도구적 지지는 ‘아플 때 보살피 주는 것’,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을 하는 것'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지원에 도구적 지지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지원은 정서적 지원보다는 적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제적 지원과 객관적 유대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형제·자매의 도움보다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와 자녀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형제·자매의 특성 중 질투와 경쟁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죄의식 등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유대의 경우에는 Gold(1998a)에 의하면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 형제·자매와의 실제적인 접촉이나 도움행동이 없더라도 형제·자매가 살아 있다는 의식만으로도 충분히 수행된다고 한다. Bedford(1989c)는 이러한 기능을 '형제·자매의 보호감시자(watchdog)로서의 기능'이라고 명명하고, 노년기에 형제·자매가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후(background)에 있으면서 형제·자매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는 잠재적인 지지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정서적 지지는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후자의 역할로써 형제·자매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며 이는 홀로 남은 세상에서 든든한 지지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형편

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종교를 갖을 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형편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연령은 70대가 가장 성공적 노화로 자신의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느꼈고, 90대 이상의 노인은 연령대별 가장 낮은 점수를 가져 다소 성공적 노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형제·자매관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공적 노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인 정서적 지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주관적 경제형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은 사회·정서적 지지로서 정신적인 지지를 위해 ‘함께 있어주는 것과 기분을 돋우는 것’, 그리고 ‘문제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 ‘서로의 존중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지지는 신체를 활력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치료 효과가 있다(John Rown, 2002)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와의 친밀한 관계는 지지의 행동이 포함되고, 지지를 받는 경험은 삶의 만족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bert Kahn, John Rowe(2002)도 건강한 남자인 경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없으면 아플 가능성이 더 많고 오래 살 가능성은 더 적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가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수명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 형제·자매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은 노후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성공적 노화에 주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주관적 경제형편이 성공적 노화를 느끼게 한 이유로는 사람은 저마

다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식은 심리적 복지감을 지지할 수 있는 충만감과 자기 유용성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조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강화된다(Shumaker & Brownell, 1984; 김희순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주관적 경제형편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되며, 자신의 형제·자매가 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성공적 노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종교와 교육정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다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종교는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는 신체적 노화가 결코 성공적 노화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성공적 노화라고 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노년기의 형제·자매가 따뜻한 인관관계를 제공해 주고, 이들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자로서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노년기의 삶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곧 심리사회적 요인들인 죽음에 대한 불안, 외로움,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 홀로 됨의 스트레스 등을 경감시켜 주어 질병, 장애, 죽음 등의 위험

요인들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노년기 형제·자매는 사망 전까지 영구적인 지원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숨어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년기에 많은 노인들은 사회·정서적 지지의 수혜자이자 제공자가 된다. 그들이 받는 정보 교환, 상호 신뢰, 돌봄, 사랑, 존중, 호혜적 의무와 같은 지지의 많은 부분은 같은 연령대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호의, 호감, 사랑, 존중, 존경 등의 정서적 지지는 노인들의 인지·정서 기능 감퇴를 예방하는 주요 자원이 된다. Zunzunegui 등(2003)의 연구에서도 친구, 자녀, 친척들과의 사회적 연계 및 사회 지지망, 사회적 통합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인지기능 감퇴를 예견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맥아더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을 가진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정서적 지지의 빈도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예측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는 한 사람이 정서적 지지의 제공자들로 구성된 호위대에 둘러싸여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나가는 것이 되며, 이는 가장 이상적인 성공적 노화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호위대 내의 관계의 질 그리고 지지의 적절성은 개인의 안녕과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지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형제·자매관계는 이인관계(dyadic relation)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노년기 형제·자매간의 관계는 평

등한 관계로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주는 자의 성공적 노화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형제·자매간의 모두를 포함시켜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현재의 정서적 지원을 조사하다 보니 사실상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정서적 유대 및 정서적 지지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의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지가 위험요인(질병, 은퇴, 사별, 죽음,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에서 회복력(resilience)을 갖게 하여 성공적 노화에 주요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의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결론적으로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년기를 길이를 연장시켜 놓았고, 노년기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할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평생 주기적 생활사건사 예를 들어 자녀의 독립, 배우자 사망, 질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노년기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관계의 동료애, 감정적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서적 지지는 노년기 성공적 노화에 심리적 위안, 자신감과 행복감 등 노인의 긍정적 감정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관계 특성인 정서적 지지는 노인이 자신의 일생을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사회 환경적, 정신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등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된다.

따라서 노년기 형제·자매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의 경감과 해결에 두는 노인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형제·자매를 통한 노후생활의 적응 도모와 삶의 질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를 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주거편의서비스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제도의 차원에서 노년기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군청 산하의 복지센터 및 대학을 연계로 한 센터에서 형제·자매들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기관들의 상담지원을 통해서 노년기 형제·자매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김정순(1989).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2001). 노년학. 교문사.
- 김희순(2004). 노년기 지원제공활동과 성공적 노화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제공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2005). 아동의 출생순위 및 형제관계와 친구관계의 질, 단국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연금법(2005). 법률 7796호, (일부개정 2005.12.29).

박경란 · 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성혜영(2005). 성공적 노화 모델 연구 - Rowe와 Kahn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안명자(1994). 친족 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지연(199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 적정화 · 보상 책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화(1997). 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연(2004). 형제자매지위 변인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오병훈(2004).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모델, 노인 정신의학, 제8권(1), 1-16.

임경수(2005). 인생의 봄과 가을 : 중년의 심리이해와 분석. 학지사.

임선영(1993). 노년기 형제관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진(1982).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 심리학회 초록집.

윤희·한경혜(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년학회지, 14(1), 117-139.

전경란(1990).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옥분(2001). 성인발달과 노화. 교육과학사.

조해경(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황숙(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재석(1975). 도시 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20집.

통계청(2004).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2005). 장래 인구 특별추계 결과. 대전, 통계청.

하정연(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관련변인 연구-중산층 노인의 SOC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혜(2000). 신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현방.(2003). 성공적 노화의 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llan, G. (1977). Sibling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77-184.

Antonucci, T., & Akiyama, H. (1987). Social network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2 : 519-527.

Balters PB, Baltes MM.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Successful aging: Perfect lo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ED by Balts PB, Baltes M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34.

- Blau, Z. S. (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New Viewpoint.
- Bengtson, V. L., & C. Rosenthal & Haddad(1976). Families and aging ;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3nd ed.).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Bengtson, V. L., & Cutler, D. (1985). Generations, cohort,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2nd ed.).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304-338.
- Berezin, M. A.(1997). Partial grief for the aged and their families. In E. Pattison (Ed.), *The experience of dying*.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Bossard, J. H. S. & Boll, E. S.(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3, ED), New York : Haper & Row.
- Cicirelli, V. G.(1977). Relationship of sibling to the elderly person's feelings and concerns, *Journal of Gerontology*, 131 : 309-317.
- Cicirelli, V. G.(1980). A comparison of college woman's feelings their sibling an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111-118.

- Cicirelli, V. 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L A Path Mo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111-118.
- Cicirelli, V. G.(1985). Sibling relationship throughout the life cycle.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1) : 177-214.
- Clark, M & Anderson, B. (1967). *Culture and aging*.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 Crosnoe, R., & Chi, I.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st Years :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 309-328.
- Dimond, M., Lund D. & Caserta M. S. (1987).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in an elderly sample. *The Gerontologist* 27 : 599-604.
- Kivett, V. R. (1986-1987). Rural / Urban elderly and siblings: Their Value Consensu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2) : 149-159.
- Lemon, N., Bengtson, V. & Peterson, J.(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e Theory of Aging; Active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 511-523.

Lopata, H. Z. (1979). *Women as widows: Support Systems*. 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Peterson HB. Progressing From Disease Prevention to Health Promotion, *JAMA* 1999;282 : 1812-3.

Robert Kahn, John Rowe (2002). 성공적인 노화. 도서출판 신정

Rowe, J. & Kahn, R.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Seeman, T. E., Bruce, M. L. & McAvay, G. J. (1996).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Onset of ADL Disability;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B(4) : 191-200.

Scott, J. P. (1983). Siblings and other k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rubaker, T. H(ed), Sage Publication Inc.

Suggs. P. (1989). Predictors of Association Among Siblings. A Black / White Comparison. *American Behavior Scientist*, 33 : 71-79.

Wong, Paul T. P.(1989).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30(3) : 516-525.

Zunzunegui MV, Alvarado BE, Del Ser T, Otero A. Social networks,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engagement determine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dwelling Spanish older adults.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2003;58 : s93-100.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uccessful Aging i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Kim Young Soo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how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ffective support, financial support, service support, objective attachment) affect a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feature, sociological feature, subjective physical health).

As the result of graying, a good number of scholars note that the affective support could influence on more satisfaction in aging when one lost his roles in society, close friends and spouse's death. Thus, it is predicted that affective support that is one of the characters i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would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To prove it, I used MacArthur study use self efficacy scal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other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self-report were used for my interviews. This survey's target was 370 persons who aged over sixty, living in Seoul, Kyoung-Gi-Do and Dae-Gu. To analyze, I us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ANOVA, Pe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result of the survey:

First, betwee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nd successful aging, the highest relationship was affective support. Also, financial support, service support and objective attachment that were the characters of sibling relationship were related to each other.

Second, i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sibling's affective support was the most effective factor in successful aging at old-age. Next, it was service support of sibling that was influenced on successful aging. I found that financial and objective attachment did not influence on the successful aging.

Third, when I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democratic variable and successful aging, it showed that successful aging didn't differ from sex. 70~79 aged persons were 86 point the highest successful aging and over 90 aged persons, 69 point the lowest successful aging. It was more and more closer to successful aging that one believes in a religion, doing something(job), well-educated and has better financial environment.

Forth, the highest(first) influenced variable that had an effected a

successful aging i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and social-democratic variable character was affectiv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econd influenced variable that had influenced on successful aging were religion and education. Age had a little influenced on successful aging. Survey showed that affective support had the most influence factor on successful aging.

Nowadays, families with no children are increasing and aging society have already come. It is difficult for elderly people to make relationship to their adult child. However, it was proved that successful in sibling relationship feature at old age, elderly people who had the similar experience and memory, having the most time with each other, hav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ging. Especially, it proved that affective support had contributed to satisfaction powerfully in old age. Most of all, sibling relationship in old age was the core factor for the old to enjoy their life-time.

Therefore, positive social and economical support to sibling families is important subject in terms of field of policy. In conclusion, education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a sibling relationship is needed at welfare centers that is connected with city or a county office or university. Also, social networking program is required to sibling by counsel support through consultation office.

NO			
----	--	--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형제자매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어르신의 응답 하나 하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06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가족학 전공

김 영 순

I. 노년기 형제자매 특성

1. 다음은 어르신의 형제자매관계 중 정서적 지원을 어느정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늘 그렇다	자 주 그 렇 다	어 찌 다 그 러 는 편 이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집안행사나 잔치 때 서로 상의해서 치룬다.					
2. 속상할 때 형제자매를 만나면 위로가 된다.					
3. 개인적문제 발생시 의논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4. 나이가 들수록 형제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간다.					
5. 고독하고 외로울 때 솔직히 속을 털어놓고 의지한다.					

2. 다음은 어르신의 형제자매관계 중 경제적 지원을 어느정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늘 그렇다	자 주 그 렇 다	어 찌 다 그 러 는 편 이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서로 물질적으로 힘 닿는데 까지 도와준다.					
2. 아플 때 수술비나 병원비를 지원해준다.					
3. 힘들 때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					
4. 갑자기 물품이 떨어졌을 때 도움을 준다.					
5. 명절이나 제사의 비용을 도와준다.					

3. 다음은 어르신의 형제자매관계 중 **서비스 지원**을 어느정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늘 그렇다	자 주 그 렇 다	어 찌 다 그 러 는 편 이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간호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					
2. 약수터, 등산, 여행, 취미활동, 종교활동을 함께 한다.					
3. 우리 집의 중요한 일을(법적문제, 주택문제) 결정할 때 도와준다.					
4. 살림살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집수리, 차수리 등) 도와준다.					
5. 자녀 문제 발생시 상의하고 도와준다.					

4. 다음은 어르신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중 **객관적 유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형제자매와 **거주근접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같은 동네(아파트) ② 걸어서 30분 미만 ③ 같은 시
④ 같은 도 ⑤ 다른 도 ⑥ 해외

2) 형제자매와의 **방문빈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한달에 2~3번 ⑤ 한달에 1번 ⑥ 일년에 2~3번
⑦ 일년에 1번 이하

3) 형제자매와의 **전화빈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한달에 2~3번 ⑤ 한달에 1번 ⑥ 일년에 2~3번
⑦ 일년에 1번 이하

4) 형제자매와의 **e-mail 및 편지쓰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한달에 2~3번 ⑤ 한달에 1번 ⑥ 일년에 2~3번
 ⑦ 일년에 1번 이하 ⑧ 기 타

II. 성공적 노후 특성

1. 다음은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2. 나는 내 생활 주변을 스스로 잘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나는 노후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4. 나는 가족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5. 현재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삶에 가깝다					
6.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7.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					
8. 나는 요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 *					
9. 나는 요즘 침체되고 처지는 느낌이다. *					
10. 나는 요즘 우울하고 괴롭다. *					

* 역코딩 문항

2. 다음은 어르신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3. 주변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4. 친척집의 길흉사(결혼식, 장례식 등)에 직접 참석한다.					
5. 친, 인척들과 자주 어울린다.					
6.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해 주고 의논상대가 되어준다.					
7.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8. 나는 모임이나 단체(노인회, 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 활동을 한다.					
9.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10. 나는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					

3. 다음은 어르신의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은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					
3. 나는 늙고 지쳤다고 느껴진다. *					
4. 동년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					

* 역코딩 문항

Ⅲ.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세

3. 종교는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어르신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6. 주관적 경제형편을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매우 힘들다

② 힘들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